



# 보름간의 뜨거운 의견수렴 대장정!

- 전국 9개 권역, 1,500여 낙농가 참석한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성황리에 종료 -
- 육우송아지값 폭락대책, 환경규제 강화 등 현안문제 대책주문 쏟아져 -



12월 5일(수)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경북지역 대토론회

지난해 11월 27일(화)부터 시작된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가 지난해 12월 10일(월) 충북지역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날까지 9개 지역에서 1,500여명의 지역 낙농가들이 참석하여, 전국 낙농가 4명중 1명이 참석할 정도로 전국 낙농가의 반응은 뜨거웠다.

금번 순회 토론회는 예년과 달리 환경규제에 대응한 낙농분뇨 자원화방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뇨전문가들로부터 분뇨정책 추진동향, 가축분뇨의 특성과 가치, 목장별 분뇨처리방안, 착유세정수 적정 처리 등 젖소분뇨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듣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별로 많은 낙농가들이 참석하여 육우송아지 거래실종 및 가격폭락 대책, 근본적인 사료값 안정, 조사료 가격 및 수급대책,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공퀴터



11월30일(금) 순천미림웨딩하우스에서 개최된 전남지역 대토론회



12월 3일(월)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충남지역 대토론회



12월 4일(화) 전주천하장사가든에서 개최된 전북지역 대토론회



12월 6일(목) 창원축협에서 개최된 경남지역 대토론회

문제, 현실적인 FTA 피해보전대책, 무허가축사 문제, 축산 가설건축물(비가림시설) 기준 현실화, 건폐율 상향, 실질적인 분뇨처리대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선(증축허용 등), 시중 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금리 인하, 면세유 공급 개선, 구제역 백신 부작용 피해 등 낙농현안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들이 쏟아졌다.



12월 10일(월) 충북낙협에서 개최된 충북지역 대토론회

행사를 마친 이승호 회장은 “낙농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농가의견을 중심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강도 높은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2013년도 협회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회원농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협회활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금번 순회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낙농가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